

**19<sup>th</sup> North American Meeting of the  
Urban Economics Association 출장**

2025. 10. 2. - 10. 6.



## 1 배경 및 목적

### 1) 19<sup>th</sup> North American Meeting of the Urban Economics Association 참석

- Urban Economics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하계 학술대회(이하 UEA 2025)가 2025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
  - Urban Economics Association은 1990년대 North American Regional Science Council (NARSC) 회의에서 파생된 도시·공간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단체임.
  - 2006년 토론토에서 첫 북미 회의를 공식 개최하며 학술단체로 자리 잡았으며, 매년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1회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.
  - 북미 도시경제학 분야의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학회로, 지역경제학과 도시경제학의 최신 연구경향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학술대회로 볼 수 있음.
    - 61개 세션, 21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, 기조 연설자인 Cecile Gaubert(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), Keith Head(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) 등이 최신 도시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
  - 다양한 발표 세션에 참석하여 연구 흐름을 모색하고 학계 인사들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음.
- Digital infrastructure가 도시 내 소비시설 접근성 개선 및 지역별 차이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, 연구 개선을 위한 조언을 받고자 함.
  - 서강대학교 전현배 교수 및 텍사스대학교(달러스) 양동윤 박사과정 학생과 공동 집필한 논문임.

## 2 출장 개요

- 기 간: 2025년 10월 2일(목) ~ 10월 6일(월), 입출국일 포함
- 출장지: 캐나다 몬트리올
- 출장자: 총 1명

	이름	소속 및 직함
1	이공	산업·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

- 출장세부 일정

일자	시간	주요 활동 내용
10/2 (목)	9:35~ 현지 9:55	[출국] 인천공항 → 토론토 공항(KE073)
	13:00~14:20	[출국] 토론토 공항 → 몬트리올 공항(AC412)
	15:00~16:00	현지공항 도착 후 호텔 이동, (몬트리올 시내 호텔-Sonder Maisonneuve Apartments Downtown)
	16:00~18:00	학회장소 사전방문 및 발표준비
10/3 (금)	7:45~8:30	학회 등록 및 오전세션 참석
	11:30~12:30	점심
	13:30~15:30	논문발표 (3D. Place-Based Policy in the Modern Economy)
	16:00~18:45	Keynote 강의를 포함한 오후세션 참석
10/4 (토)	9:00~12:30	Keynote 강의를 포함한 오전세션 참석
	12:30~13:30	점심
	13:30~15:30	오후세션 참석
	16:00~18:00	네트워크 행사 참석
10/5 (일)	8:00~9:24	[귀국] 몬트리올 공항 → 토론토 공항(AC403)
	현지 12:30~	[귀국] 토론토 공항 → 인천공항(KE074)
10/6 (월)	~16:30	

### 3 주요 출장내용

#### □ 개요

- 회의: UEA 2025
- 일시: 2024년10월2일 ~ 10월6일(월)
- 장소: Universite du Quebec a Montreal(UQAM), Montreal, Canada
- 참석: 경제 및 정책연구 관계자 300여명

#### □ 주요 내용

##### 가. Digital Infrastructure 실증분석 논문 발표 (2025년 10월3일 오후)

- 3D. Place-Based Policy in the Modern Economy 세션에 속하였으며, 같은 세션에 Noah Kouchekinia(University of California, Irvine), Victoria Wenxin Xie(Santa Clara University), Yichen Su(Southern Methodist University) 등이 발표자로 참석
  -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“Digital Infrastructure for Urban Consumption Amenities: Evidence from On-Demand Food Delivery Services”로, Digital Infrastructure로 인한 도시 내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 결과를 보여줌.
  - Consumption Amenities 관련 연구는 Yichen Su 교수의 논문과 함께 유일했으나, 다른 place-based policy 논문 발표 참석자들도 관심있게 경청하였음.
- 발표한 논문에 대해 토론자 및 청중들의 질문 및 코멘트가 있었으며, 논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음.
  - 토론은 Yichen Su교수(Southern Methodist University)가 했으며, 토론자가 발표한 논문이 "consumption city로서의 도시 기능 변화"였기에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음.
  - 전반적으로 논리 구성이 잘 맞고, 도시경제학에서 관심있는 주제인

- 데 구현을 잘한 것으로 평가함.
- 논문의 초반부 동기인 "소비자의 접근성"과 달리, 실제 논문의 분석은 "식당의 대상범위 확장"으로 서술된 경향이 있음.
  - 소비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.
  - 편의성(Convenience), 다양성(Variety)의 소비자 효용 증가를 각각 계산하고, 비율을 구하는 것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.
  - 추가적인 Instrumental Variable 후보를 몇 가지 제안
- 청중 중에서는 Siqi Zheng(MIT) 교수가 질문 및 몇 가지 제안을 하며, 논문에 관심을 보임.
- 식당별 접근성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음.
  - 식당의 비용(dine-in vs. OFDS), 소비자의 비용(시간, 배달비, 메뉴 비용)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음.

#### 나. 세션발표 등 참석 (2025년 10월3-4일)

- Pauline Carry, Benny Kleinman, Elio Nimier-David의 논문 "Location Effects or Sorting? Evidence from Firm Relocation"
-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의 임금이 왜 더 높은가에 대해, '입지 효과(location effects)' 때문인지, '공간적 선별(sorting)' 때문인지를 분석
    - 입지효과는 인프라, 지리적 이점, 집적 효과
    - 공간적 선별은 고생산성 근로자 및 기업의 집적
  - 프랑스 행정자료와 미국 상업데이터를 활용해, 매년 약 4%의 기업(사업체)이 실제로 이전하고 있음을 보여줌.
  - 집적효과보다 '선별효과'가 지역 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임을 시사
  - 기업 이전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식별 전략 제시한 점에서 기여함.
    - 기업의 공간적 선별(spatial sorting) 실증
    - 동일 출발지 기준으로 볼 때, 규모가 크고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크고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함을 확인.
    - 근로자-기업-입지의 '분해(three-way decomposition)' 수행하여 기존

AKM(Abowd-Kramarz-Margolis) 모형을 확장

- 근로자 효과, 기업 효과, 지역 효과를 별도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
- 정책적 시사점
  - 지역 정부가 기업 유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으로 임금 상승을 유도하려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,
  - 지역 인적자본 형성과 기업-근로자 매칭의 질 제고가 더 근본적 해결책임을 제시

□ Costas Arkolakis, Arnaud Costinot, Dave Donaldson, Andres Rodriguez-Clare의 논문 "Policy Competition in a Spatial Economy"

- 정부 간 정책 경쟁(policy competition)이 공간경제(spatial economy)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
  - 각 지역(도시나 국가)은 노동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·보조금·공공재 투자 등 정책을 설정하며,
  - 이 상호작용이 균형적 지역 분포와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
- 기존 무역 및 도시경제 모형을 결합해 '내생적 입지 결정(endogenous location choice)'과 '정책 경쟁'을 통합한 공간 일반균형모형을 개발
- 핵심 결과:
  - 인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금 감면 및 보조금 경쟁으로 과도한 집중과 복지 손실 발생
  - 반면 사회적 계획자(social planner)가 모든 지역을 조정하는 경우,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가 가능
  - 즉, 정책 경쟁이 없는 중앙집중적 조정이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음.
- 논문의 주요 기여:
  - 정책 경쟁을 공간경제모형에 통합한 최초의 일반균형 접근
  - 지역 간 이동과 정책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
  - 균형적 지역발전과 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

□ Eric Donald, Masao Fukui, Yuhei Miyauchi의 논문 "Optimal Dynamic Spatial Policy"

-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공간경제(spatial economy) 내에서 사회적 계획자가 어떻게 최적의 지역정책(spatial policy)을 설계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규명
  - 기존의 정태적(spatial static) 접근을 넘어, 동태적(dynamic) 자본축적·인구이동·생산성 성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최적 정책 모형(optimal policy model)을 제시
- 정책의 단기적 효율성뿐 아니라 장기적 경로 의존(path dependence)과 도시 간 성장격차의 누적 효과를 고려한 분석임.
- 결과적으로, 균형발전(equilibrium efficiency)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보조금이나 조세정책보다 지속적·점진적 재분배정책이 효과적
- 동태적 공간균형(dynamic spatial equilibrium) 모형의 정식화
  - 시간에 따라 자본·노동·생산성이 내생적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포함
- 정책의 경로 의존성(path dependence) 규명
  - 특정 지역에 초기 보조금이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,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영구적 생산성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메커니즘 제시
  - 정책의 '순간적 최적화'(myopic optimization)의 한계 지적
- 정량적 시뮬레이션 및 검증
  - 미국 내 카운티 수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보정하여, 단기 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복지 기준에서 최적 정책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임.

□ Sebastian Bauer, Florencia Hnilo의 논문 "Scars of the Gestapo: Remembrance and Privacy Concerns"

- 물리적 추모의 흔적이 과거 감시·탄압의 기억을 환기시켜, 오늘날 프라이버시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.
- 데이터는 베를린의 거리 단위 이미지 자료(예: 구글 스트리트뷰)와 설문 실험 데이터를 결합해 구성

- 이는 권위주의적 기억이 현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행동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 증거로 해석됨.
- 프라이버시 측정의 새로운 접근한 것으로 기여

□ Lefteris Andreadis, Manolis Chatzikonstantinou, Eleni Kalotychou, Christodoulos Louca, and Christos A. Makridis의 논문 "The Local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 Investments: Evidence from the Municipal Bond Market"

- 이 연구는 AI 관련 일자리 투자가 지역 경제와 지방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2014~2021년 미국 카운티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고, Bartik-type 도구변수(Bartik Instrument)를 활용해 인과관계를 추정
- AI 인력 투자가 지방채 금리를 낮추며, 그 효과는 만기가 길고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남.
- 이는 AI가 지역 생산성과 세수 기반을 확대시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
- 주요 기여
  - AI 노동투자와 지방채 금리의 인과관계 규명: Bartik-type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AI 일자리 증가가 지방채 수익률(금리)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인과적 근거를 제시
  - 지방재정의 신용도 개선 효과: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, 인구 유입,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유발하여 지방세수 확대 및 지방정부의 차입조건 개선으로 이어짐을 분석
  - 금리 하락의 규모적 추정: AI 관련 구인공고가 상위 10% 수준(1,000개 사업체당 약 140건)인 카운티는 금리가 평균 15bp(0.15%) 감소, 저(低) AI 지역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임.
  - ChatGPT 출시 사건 연구(event study): ChatGPT 도입 후 AI 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채권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(최대 4.4bp) → 시장의 AI 가치 인식 변화 입증

- 채권특성별 이질적 효과 분석: 장기채와 낮은 신용등급 채권에서 AI 효과가 집중되어, AI의 이익이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에 기반함을 제시
- 발행 구조 변화 발견: AI 투자가 활발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, 만기가 긴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을 보임.
- 지방 생산성 및 세수 경로 규명: AI 투자가 GDP 및 생산성 상승(0.2%), 고학력 인구 유입, 주택·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, 재산세 중심으로 세입이 2~3% 증가함을 확인
- 기존 기술-금융 연구의 확장: 기존 AI 연구가 기업·산업 단위에 집중된 반면,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공공금융(지방채 시장) 수준에서 AI의 확산효과를 실증

□ So Hye Yoon의 논문 "Selling Fast or Selling Junk: Is iBuying Sustainable?"

- iBuying 기업들이 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규명하고, 이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제시
  - iBuyer는 빅데이터 기반 주택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즉시 매입을 제안하는 기업
- 판매자의 비공개 정보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
  - 전통적 거래의 번거로움(hassle cost)
  - 주택의 비관측 품질(unobserved home quality)
- 판매자는 (a) 거래 편의성 때문에, 또는 (b) 제시 가격이 기대 시장가보다 높을 때 iBuyer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
  - 후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(adverse selection)이 발생하여 iBuyer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
- 데이터 및 식별 전략
  - 주택 거래 및 매물 데이터로 두 비공개 요인의 공동분포(joint distribution)를 추정하고,
  - 두 가지 Counterfactual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

- 계약 설계와 비정형 데이터 활용의 결합이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수익성 개선에 효과적
- 알고리즘 기반 시장에서는 단순한 가격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정보 비대칭을 내재화하는 계약 설계 +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지속 가능한 알고리즘 시장 운영의 핵심임을 보여줌.